

빈 심포니·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광주 무대에

광주문화재단 기획공연 라인업 발표

장한나·피에타리 잉키넨 지휘... 브루스 리우·손열음 협연

유키 구라모토·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데이브레이크 무대

11시 음악산책, 인문학·클래식 접목 마티네 콘서트 김이곤 진행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광주 무대에 선다. 명문 유럽 오케스트라의 광주 공연은 이례적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6월 대극장·소극장 리모델링 후 재개관을 앞두고 기념 공연 등 올해 기획 공연 라인업을 발표했다. 동시대 최고의 예술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엄선된 공연을 선보이는 포시즌(Focus), 인문학과 클래식을 접목한 마티네 콘서트 11시 음악산책 등이다.

포시즌의 첫 무대는 오는 6월 11일 열리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1900년 빈 음악협회 관현악단으로 창단된 빈 심포니는 빈 문화와 도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빈 음악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번 내한공연의 지휘봉은 장한나가 잡는다. 지난해 빈심포니와 호흡을 맞췄던 장한나는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협연

자는 지난 2021년 제18회 쇼팽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다. 그 역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한 곡을 협연할 예정이다.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SWR방송교향악단) 광주 공연(9월16일)도 예정돼 있다. 카이저슬라우테른 방송교향악단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이 합병해 창단된 오케스트라로 정명훈 지휘자가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지휘봉은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이자 KBS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인 핀란드 출신 피에타리 잉키넨이다. 협연자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이다.

포커스 공연에서는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6월 17일)도 펼쳐진다.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솔로와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는 파르텐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8월 24일~25일)도 포커스 공연으로 준비했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빈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장한나가 광주문화재단 무대에 선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빈 심포니와 장한나의 공연 모습.

명작 동화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파랑새'가 원작인 뮤지컬로 행복을 찾아나선 틸틸과 미틸의 모험을 그리고 있다.

극단 진주자 제작한 작품으로 연출 임선경이 참여하고,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10여명의 뮤지컬배우들이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기획공연 포커스(Focus)의 첫 무대는 6월 18일 소극장 무대에 서는 4인조 록밴드 '데이브레이크'다. 데이브레이크는 '좋다', '들었다 놔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등 대표곡을 들려준다.

7월 18일은 싱어송라이터이자 클래식 기타리스트 장하은을 만난다. 2021년 JTBC '슈퍼밴드II'에서 기타 4중주팀 '포코'의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활약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기타연주곡 스페인 총곡 '롬바',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 자작곡 '원스 어게인', '달장' 등을 들려준다.

포커스 무대는 올해 다섯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다. 해설과 영상, 연주 등 인문학과 클래식을 접목한 무대로 지난해에 이어 콘서트 가이드 김이곤이 올해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의 주제는 '사랑에 관한 여덟 가지 변주, 올댓 러브(All That Love)'로 가족, 친구, 조국, 자연, 연인, 자아 등 다양한 사랑에 대해 고찰해본다.

3월 28일 첫 무대는 '클림트와 고흐, 꽃과 나무 그리고 하늘과 바다'다. '자연'에 대한 흠모와 갈망을 예술가들의 그림을 통해 발견해보는 시간으로 클림트의 꽃, 고흐의 나무 등을 통해 자연을 사랑한 화가들의 이야기를 만난다. 레퍼토리는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등이며 메노스 앙상블이 연주한다.

이후 '데미안 헤세, 내 안의 데미안을 찾아서', '이중섭 도쿄로 보낸 편지', '스메타나와 알폰소 무하, 나의 조국'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5월 공연까지는 공연마루, 6월부터는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이브레이크



유키 구라모토



피에타리 잉키넨

광고문학동호회, 제11호 동인작품집 '光高문학' 발간

시·소설·수필 등 작품 수록

광고문학동호회(회장 문순태)가 발간하는 제 11호 동인작품집 '光高문학' (여원)이 나왔다.

이번 작품집에는 은사님 작품을 비롯해 동문 문인들의 시와 소설, 수필 등 다양한 작품이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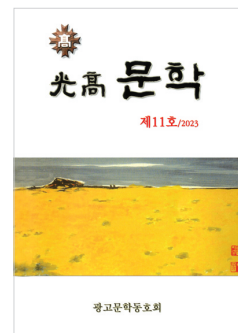
먼저 은사님 작품으로는 이내무 시(비 맞는 대숲)을 비롯해 장정식의 수필(전쟁은 인류 공동의 적이다), 오명규 시(낙엽), 김재창 동화(할머니와 깃털), 정우성 한시(담양 죽녹원), 최승권 시(극한 직업) 등이 담겨 있다.

동문 문인들 작품으로는 ▲시 부문에 김계운 '소나비', 주명영 '낙엽', 김용욱 '이별연습', 김

희수 '강물의 이력', 나중영 '길의 탄생', 김완 '노을주를 마시다' 등이 실렸다. ▲수필 부문은 표형섭 '인생길을 맛과 멋으로', 오덕렬 '나의 자화상', 임지택 '내리사랑', 윤삼현 '도박' 등이 수록됐다. ▲소설 부문은 문순태 '느티나무와 어머니', 심규식 '연장소설1', 정병중 '복숭아밭의 꼬마꽃밭' 등이 게재됐다.

또한 작품집에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광고문학상백일장 운영 현황 등이 실려 있다. 누적 참가인원은 지금까지 8252명이며 수상자는 1445명을 배출했다.

한편 문순태 회장은 "우리 광고는 주지하다시



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 지역문단을 뛰어넘어 한국문학 발전에 중추적 기능을 해왔음을 큰 긍지로 삼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선후배 동문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낸 전통의 확고한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갖고 '光高문학'을 발간하는 것은 이 같은 전통의 뿌리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 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순정 개인전, 10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꿈꾸며' 조순정 작가 개인전이 오는 10일까지 광주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새봄 삶에 자연을 차경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작품 속에는 갈대와 습지의 청둥오리와 왜가리가 등장한다. 이들 생명체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등으로 해마다 수 백만마리 해양동물의 생명이 사라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플라스틱의 역습', '사유의 가상정원'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조 작가는 "창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왜가리의 삼각 구도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조 작가는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공생의 법칙'

한국문학의 새로운 목소리

한국현대소설학회 12편 '2023 올해의 문제소설'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문예지에 발표된 소설(중·단편) 가운데 한국현대소설학회에서 선정한 12편의 작품을 엮은 소설집이 발간됐다.

한국현대소설학회의 교수와 평론가들이 해설을 덧붙여 펴낸 '2023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은 한국문학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탐색은 물론 오늘날 감지되는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현대소설학회는 책머리에서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에 내몰려져 있고 참사와 비극의 공포도 엄존하고 있다"며 이럴 때 문학이, 소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함이나 허무에 빠지지 않고 불의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희망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문학은 가지고 있을까"라고 말한다.

이번 책에는 모두 12작가의 12편의 소설이 수록됐다. 김기태(전조동), 김벨라(지하철은 왜 셋별인가), 김병은(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김본(슬픔은 자라지 않는다), 김애란(흙 파티), 김이숲(관객), 김재원(서울 오아시스), 성혜령(비



첫 농장), 이서수(짧은 근외의 행진), 이희주(천사와 황새), 정영수(입물을 걷는 일), 현호정(연필 샌드위치)가 그것이다.

한편 한국현대소설학회는 현대소설 분야를 전공하며 '한국의 현대소설'을 강의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구학회이다. 현대소설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자료를 발굴·정리하며 연구 결과의 평가를 통해 이론을 정립,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문화학교 강사 모집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 빛고을국악전수관이 국악문화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장구, 민요, 가야금, 대금, 고법, 해금, 가야금병창, 정가, 어린이 가야금, 어린이 해금 등 11개 강좌 11명으로 마감은 오는 14일이다.

응모 자격은 전문분야 경력을 가진 강사 또는 예고, 대학,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로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무형문화재 및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이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이력서(사진부착),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악문화학교는 매년 15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국악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7일 광주시의회·광주여성가족재단 공동 정책토론회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가사수당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시의회(의장 정무창)와 재단법인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이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2층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시의회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토론회 발제 주제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가사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김경례 대표이사)', '광주시 수당제도와 수혜층 분석'(김영신)이다.

토론 좌장은 광주시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의원이 맡으며 정찬기 빛고을 50+센터장이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가사수당 지

급'에 대해, 구은정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조교수가 '일상에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발표한다.

또 장세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조선의 전 참여자치21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가사수당 도입의 사회보장 함의'와 '가사노동의 노동 가치 보장'을 주제로 의견을 밝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민선 8기 공약인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을 위해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재단은 앞으로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사 노동 실태, 가사 노동의 가치에 관한 설문 조사와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